# 서울대학교에서 일본문화를 연구하는 의미


## 윤상인(尹相仁)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아시아언어문명학과 교수


국립서울대학교에 일본문화를 교육・연구하는 조직이 지난 2013년 3월에 발족되었다.개학 이래 67년만에 이루어진 역사적 전환이다. 늦은 출발이기는하나, 개성있고 자립적인 일본전문가의 양성 거점을 절실히 바라는 한국사회의 목소리는 여전히 높다. 이미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일본연구는 규모의 확장에서 이제는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할 시기에 놓여있으며, 보다 성숙된 일본연구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개설된 일본언어문명전공이 일본연구의 새 시대를 개척하고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혹은 하지 말아야만) 하는가?

- 일시　2013년　5월　17일　(금)<br>16:30〜18:00
- 장소　동경대학 교양학부 18호관<br>4F Collaboration Room 1
- 주최　동경대학 비교문학비교문화연구실<br>03-5454-6330<br>office@fusehime.c.u-tokyo.ac.jp